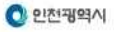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2월 9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시민정책 담당관실	담당 자 • 시민참여지원팀장 박혜영 ☎440-2416 • 담당자 조영희 ☎440-2418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민청원, 2020년에도 소래IC 등 지역현안 해결
 - 2020년 총 1,620건 접수, 총 79,119명 동의 기록 -
 -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7명 시민청원 필요하다” -
 - 2년 간 총 43만6천 명 방문, 2,522건 청원 등록... 온라인 소통 창구 역할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출발한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시민청원’의 2020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 2018년 12월부터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청원’은 2020년 한 해 총 1,620건 접수되었으며 총 79,119명의 동의를 받았다.

- 2019년 대비 청원 접수 건은 78.6% 증가했으며 공감 수는 5.8% 감소했다.

* (2020년 청원현황) 총 1,620건 등록, 79,119명 공감

** (2019년 청원현황) 총 907건 등록, 84,046명 공감

- 2020년 성립된 15건의 청원에 시장과 부시장 등이 답변했으며, 3천 명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다수의 공감을 얻은 128건의 청원에 대해서도 부서답변을 시행했다.

- 사이트 방문자 수는 시민청원 사이트 개설 전 월평균 225명에 불과했으나 개설 이후 현재 월평균 2만여 명으로 86배 급증했다.

○ 시민청원 통계 현황을 보면 청원 신청인의 67%가 30~40대로 나타났다며, 이 중 57%가 남성이었다.

- 각 분야별로 보면 2020년 상반기 청원은 ▲복지(48.1%) ▲교통(15.8%) 순이고, 공감 건수도 ▲복지(40.9%) ▲교통(24.9%) 순으로 특히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원대책 관련 청원이 67.7%를 차지했다.

- 하반기 청원은 ▲교통(34.5%) ▲환경(23.7%) 순이고, 공감 건수는 ▲환경(37.8%) ▲도시(31%) ▲교통(22.5%)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 시민청원을 통해 변화의 결실을 맺은 경우도 있다.

- 21번째 성립 건인 「소래IC 건설 촉구」 청원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추진이 불투명했던 소래IC 건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재협의를 추진하여 소래IC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로 밝혔으며,

- 23번째 성립 건인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생활숙박시설 건축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는 100세대 이상 오피스텔도 학교용지 확보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이를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 시민청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통협력분야 주요 추진사업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인천시민 10명 중 7명은 온라인 시민청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또 소통협력분야 주요 추진사업 중 시민청원의 필요도는 73.8점, 인지도는 52.4%로 필요도와 인지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난 2년 간 시민청원의 기록과 시민청원 방법은 ‘인천은 소통e가득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영상 사용설명서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3년차를 맞은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 결과를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느꼈다”며 “청원답변을 통해 인천시의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사항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2018년 12월부터 2020년 말까지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방문자수는 436,204명에 달하며, 총 2,522건의 청원이 등록되었고 158,334명의 시민이 청원 공감에 참여했다.

※ 홍보영상은 ‘인천은 소통e가득’ 홈페이지 및 인천시 공식 유튜브 참조

※ 운영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 홈페이지 참조(소통현장→시민참여)

<붙임> 온라인 시민청원 관련 이미지

